

## 澗松과 「考古美術」의 集字

李 弘 植

近者에 우리가 받은 衡擊으로서는 澗松의 急逝같이 큰것은 없을것이  
며 우리 나라로서도 이 분은 좀 더 계속해서 考古美術界의 指南이 되어 주  
셨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나라의 短運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澗松은 寡欲의 士요 따라서 그 人格이 高潔하였고 또 恒常 謙虛하고 愛  
情이 纖細하게 고운 분이였다. 學問을 사랑한點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였다. 澗松은 趣味三昧의 生活을 더 마  
음 것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되지 못한 것이 恨이다. 近者七、八年의  
澗松과의 親交는 메마른 우리 生活에 아름다운 追憶과 鼓舞를 나에게  
주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같이 旅行한 것으로서는 六年前에 金  
泉郡下에 修道庵의 石佛을 찾아간 것이 印象에 깊다. 때마침 나는 延  
大史學科學生을 데리고 慶州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인데 深夜에 金泉  
驛頭에 나를 마중 나와 주셨다. 金泉에는 이미 黃壽永、秦弘燮兩氏一行  
과 旅館에서 痛飲하다가 驛에 나오신 것이다. 學生中에는 普成學校出  
身도 數名있어서 人事를 받으시니 더욱 氣分이 좋으셔서 車가 떠날때는  
學生들을 보내는데 萬歲의 歡呼까지 올리신 月明下의 金泉驛頭의 記憶  
은 두고 두고 愉快한 이야기거리였다.

澗松이 고요한 밤을 즐겨서 이모저모로 讀書하시고 自己世界의 三昧  
境에 들어가신 生活을 한것은 顯著한 일이다. 여기에 關聯하여 이미 同  
人들 사이에 다 아는 일이지만 「考古美術」의 題字를 몇 있고 由緒  
있는 글字로 集字하여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마침 秘藏한 秋史의 高  
弟子集(지금 이들을 記憶하지않다)의 手錄中에서 이 네글자를 찾아 보  
시게 되었다. 그 手錄은 이미 종이도 弱해져서 군데군데 조각으로 된 葉  
은 原紙를 누메기 같이 부쳐 있었는데 秋史의 글씨와 같은 體로서 아름

다운 楷字小字이였다. 어떤 深夜에 몇번 이것을 뒤져서 봤는데 만세글  
자는 찾았으나 「考」字가 찾아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未練을 놓지 못하였  
다. 새벽 서너時나 되었는데 시장氣도 있어서 혼자 부엌에 가서 술한  
잔 데어서 있는 안주로一杯하신 뒤에 陶然한 氣分으로 또한번 처음부  
터 檢字를 하여 보았더니 드디어 이 때까지 눈에 들어 오지 않았던 「考  
字」가 딱 한字 드디어 찾아 졌다는 것이다. 深夜에 홀로 歡呼를 올리셨  
다는 이야기를 自己로서도 신기한 일로 우리에게 그 情景을 이야기 하여  
주신것이 記憶난다. 學問을 사랑하는 이 追窮의 精神은 澗松이 가진 한  
特性이였다.

澗松은 내 글을 잘 읽어 주셨다. 누구나 稱讚받아서 싫지는 않는 모  
양이라 나도 기뻐하였다. 「國史新講」中에서 내가 쓴 古代篇은 文章도 流  
麗하고 滋味있어서 단숨에 읽었노라고 언젠가 惠化洞받거리를 걸으면서  
말하여 주셨다.

또 一九五七年인가 八年의 年來에 「서울신문」의 付託으로 그 해 무엇  
을 하였는가를 隨筆調로 쓴 일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事實대로 우리 집  
안 일을 적었다. 그 해는 내 末弟가 大學을 마치고 「石公」에 順調롭게  
就職된 것이 나의 最大의 기쁨이였다. 結婚한지 二十餘年동안 長兄으로  
서 家族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 아우를 다 大學을 卒業시켜서 各己專  
攻을 하게 된것은 荆妻의 協助의 힘이였다. 이것을 淡淡한 心境으로 썼는  
데 澗松은 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 눈물이 흘러 나왔다. 우리  
의 眞摯한 努力에 感動하신 모양인데 이 글을 그렇게 보아 주신이는 그  
리 없을 것인데 이것은 역시 그이의 고운 心情의 一面이라 할 것이다. 우  
수운 이야기지마는 五十代의 好人은 눈물이 잘 나는 모양이다. 映畫館  
에서 눈물을 잘 흘리는것이 나의 病인줄 알았더니 澗松도 安易롭게 눈  
물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滋味난 「제스춰」로 나에게 이야기 하였다.  
옆의 사람이 볼까봐 수진으로 씻을수도 없고 밤에 흘러내려오는것을 放  
置하면서 때때로 씻기도하고 또 더워서 汗을 씻는척 하면서 手巾으로  
몰래 눈물을 닦는 苦衷을 澗松이 「유모리스」하게 이야기 하신것이 내는  
에 선하다. 險惡한 世上에 澗松하고 이야기하고 痛飲하는 것이 나의 「오

아시스」이었는데 이제 그「오아시스」를 잃었으니 어찌 하리오. 이 글 역시 밤중에 적어 본 것인데 異域의 旅舍에서 홀로 이것을 적게 되었으니 이것도 슬픈 일이다.

一九六二年 三月 七日 새벽

### 潤松의 心情

全 濟 玉

潤松先生이 作故하신지도 於焉間 한 달이 지나 四十九日도 未久하니 歲月이 참 빠르다. 내가 潤松先生을 처음 뵈운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는데 벌써 十數年이 지났다. 그러나 그 동안 約一年쯤 내가 美國에 가 있었던 期間을 除外하고는 逐日 相面까지는 못 되나 매우 자주 뵈울 수 있는 機會를 갖았었다. 이 동안에 내가 先生에게 배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그 中에서도 書畫骨董에 對한 潤松 審正法이 가장 貴重한 工夫였을 것이다. 그야 사람마다 鑑定、鑑賞法이 各各 있겠지만 내가 感服한 것은 潤松은 一目瞭然한 劣等品이나 僞造品 또는 凶惡한 模造品일지라도 鑑定을 부탁하는 사람앞에서는 그 사람을 失望케 하는 言辭는 한마디도 말씀함이 없었고 다만 그저 讚賞은 것이 더군요 하는 한마디 뿐이다. 흔히 十中八九人까지는 그러면 값은 얼마쯤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市價를 묻는 것이 普通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物件을 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하는 것을 여러번 옆에 앉아서 들은 것이 記憶된다. 그러나 鑑定받으러 왔던 사람이 다년간 뒤에는 細細한 것을 모두 말씀하는 수가 적지 않았다. 한편 眞品인 境遇에는 綿密한 觀察力을 傾注하여 多角度로 보고 또 본다면 그 形態 長廣幅高等을 재는 수도 있고 가지가지 細細한 것에 이르기까지 相當한 時間(때로는 몇日까지도)이 걸리며 同時에 參考될만한 物件이나 書籍까지도 들추어서 確實한 史的考證을 잡는 수도 흔히 있었다. 이러한 것은 대개가 眞品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中에서 稀貴品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러나 潤松은 決코 斷言하는 일은 나의 記憶으로는 한번도 들은 일이 없었다. 考古學徒아닌 나로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느 것이 다음가는 것인지 區分하기 매우 어려울 지경인데 나는 그야말로 옆에서 어깨 넘어로 보아서 潤松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風情風物을 나타낸 俗的 風俗畫 같은 것을 人物、山水、器皿、折枝 보다 더욱 嗜好 하신 것 같았다.

以前일은 모르겠으나 最近에는 李朝 初期 白磁器와 石物을 많이 수집하셨는데 그렇다하여 高麗 靑磁에 對한 趣味가 薄弱해진 것은 決코 아니고 그前 日政時代와 같이 雲鶴紋 靑磁梅瓶 같은 것은 지금에는 거의 求之不得이 되고로 斷念하시고 李朝 白磁中 時代的으로 蒐集品中에서 盜難 紛失當한 것을 매꾸기 위한 듯이 生覺되었었다.

李朝器中에서도 銘字가 있는 것을 愛之重之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物件이 눈에 띄면 값은 不計하고 買入하는 것을 여러번 뵈은 일도 있었다.

三、四年前 있은 일이었는데 어느 때 大學博物館에 갔더니 어떤 시골 사람이 高麗靑磁瓶 같은 것을 갖고 와서 鑑定을 해달라 하였는데 그때 마침 眞否의 斷을 내리기 困難하여 내가 그 사람을 案内하고 梨峴宅을 찾으니 그것은 꽤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하시고 돌려보낸 다음에는 그것이 倭人들이 鎮南浦에서 구어낸 「新太郎」인데 아직도 그것을 모 르느냐고 反問하셔서 저속기 당황하였었다. 美術界에 門外生인 나로서 潤松先生에게 人間으로 배운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나도 可能한 限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猜忌하지 않도록 적지 아니 努力하고 있으나 潤松先生에게 한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의 착한 마음이었다. 卽 남을 害칠 줄 모르고 惡이 덤비어도 悠悠히 皮할 수 있었던 그분의 一生이다. 또 한가지는 現代生活에 있어서 時間을 超克할 수 있었던 것도 貪나는 것의 하나이다.

은 구름과 같이 한가하고 흐르는 長流水처럼 꺼리낌 없이 悠悠히 生涯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분만이 亨有할 수 있었던 特有한 生活環境이였을 것이다.